

정보통신단말기와 친숙해지는 지름길

I. 서 언

오늘날 정보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정신적인 요소 때문인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고, 풍족한 물질생활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갖게되는 등 인간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같이 정보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부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일이 정보획득 방법을 교육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보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통신용 단말기와 가까와질 수 있는 방법과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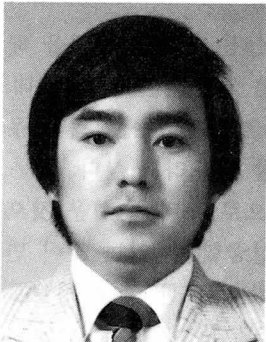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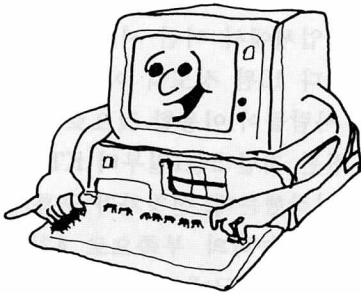
II. 컴퓨터 해커(Hacker)와 컴퓨토치(Computochi)

1. 컴퓨터 해커(Hacker)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많은 컴퓨터 해커(Hacker)들이 생겨나고, 또 이와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 “컴퓨토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정보이용기술 구사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컴퓨터 해커는 한 때 우리들 주위에 수많은 등장해 일반 정보통신이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 이용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해커들이 직간접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변화무상한 사회환경속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무사태평이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맹목적 보수성을 지닌 사람들 보다 귀찮고



李 用 鎬
한국데이터통신
전산본부 과장

힘든 일에 곧잘 뛰어든다.

최근 인공지능 센서나 리모트컨트롤 선풍기 같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도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힘이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상사람들은 많은 변화추구자들에 의해 물리적, 정신적 편안함을 제공받기도 하는데, 핵커들 역시 그들의 행위자체는 지나치며, 광적이지만 컴퓨터를 통해 끊임없이 부인할 수는 없을 듯 싶다.

이제 프로(PRO)의 의미로 통하기도 하는 핵커들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들도 한번쯤은 가져봄직 한데, 이는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하는 것이 현대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질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컴퓨터치(Computochi)

반면 “컴퓨터치”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컴퓨터치란 컴퓨터와 관련해 새로운 것을 알고는 하지 않고 다룰 수도 없는 컴퓨터 문맹인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바쁜 사회생활속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 자기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치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문제로 삼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정보화의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통신단말기는 정보획득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등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특히 이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컴퓨터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만큼 정보통신 단말기의 보급·확산이 늦어지고, 정보화의 진전 역시 더디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정보화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에서도 그 수를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 것이다.

Ⅲ. 정보통신단말기와 친숙해지는 지름길

정보통신기기로는 텔렉스로부터 근래와서 많이 발전한 랩탑(LAPTOP)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은 정보교환용 부호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정보의 교환과 공유라는 점에는 별 차이점이 없다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중 가장 보편적인 개인용컴퓨터(PC)의 경우는 어떤가?

최근들어서는 PC가격이 많이 떨어져 쓸만한 AT 한대를 백만원이하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으로 XT 한대를 겨우 장만할 수 있었던 점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도 값이 더 내려가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TV대중화시대에 칼라TV의 값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흑백TV를 값싸다고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정보통신단말기와 친숙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등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빨리 인식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직장인이든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실례로 유희자금을 단순히 저축해 둘 것인가, 아니면 주식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도 반드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가 바쁜 생활속에서도 보다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위해 나에게 진정 필요한

정보통신단말기는 내가 찾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자 개인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현대인의 필수품...

정보가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통신에 꼭 필요한 장비라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금 갖고 있는 중고자동차보다 PC를 먼저 구입하였다. 5년전 하드디스크를 처음 구입했을 때 너무도 편하고 신기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그 당시 가정용 PC가격이 중고자동차 가격보다 비싼편이었음).

그후 이 하드디스크를 잘 활용하는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많은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보조장치를 단 셈이었다.

셋째, 게임이라도 좋으니 자주 키보드를 접촉, 익숙해져야 한다.

개인용컴퓨터에서 요구되는 기능이라면 자판의 입력기능 밖엔 없다. 즉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수시로 접하다 보면 여기에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나아가 컴퓨터와도 친해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넷째,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 볼 수 있는 확실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을 시대를 흔히 KNOW-WHERE시대라 하지 않던가, KNOW-HOW의 난제는 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KNOW-WHERE의 난제는 찾는 사람에게만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미 활용중인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런 습관은 정보유통방식의 한 형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단말기 앞으로 자기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IV. 결 언

이 밖에도 우리가 정보통신단말기와 친숙해지는 지름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PC와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군데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핵커와 같이 한곳에 몰두하는 정신, 즉 시대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결정짓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하겠다. 그리고 난 뒤라야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방안들이 그래도 괜찮은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을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하지만 남보다 앞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샘플과 같이 꼭 필요한 정보만을 획득하는 일이다.

정보통신단말기는 내가 찾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자 개인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현대인의 필수품임을 상기하자.